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나리오 분야

| | |
|--|--|
| 작품 제목 | 원칙과 의리 사이 |
| 주요 등장 인물 소개 | |
| 이름 | 소개 |
| 박재민 | 이 작품의 주인공이며 A기업의 제품 출고 업무를 맡은 신입사원. 동료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갈등한다. |
| 이수현 | A기업의 경리. 식당 및 사무용품 업체와 결탁하고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 수익을 챙긴다. 재민에게 부정을 들키자 연정에 호소하여 묵인해 줄 것을 간청한다. |
| 정지훈 | A기업의 자재 구매 담당. 자재 업체들과 결탁하고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 수익을 챙긴다. 재민에게 부정을 들키자 협박을 가하여 재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 |
| 김성수 | A기업의 과장. 제품의 생산계획을 담당하며 발주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생산계획을 변경한다. 재민에게 부정을 들키자 오히려 부정에 같이 동참할 것을 권한다. |
| 시놉시스 | |
| ※ 기승전결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서술 | |
| <p>30대 초반의 청년 박재민은 아버지의 친구 분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된다. 비록 급여는 적지만, 또래 나이대의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근무하는 환경이 매우 만족스럽다. 그러나 적은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씹씹이가 과하다는 것에 의구심을 품던 중, 여직원인 이수현의 부정을 목격하게 된다. 연심을 품은 상대인 만큼 내적 갈등이 컸으나, 동갑내기이자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정지훈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다. 정지훈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던 중 그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된 재민은 지훈 또한 부정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재민은 직원들 중 가장 상급자인 김성수 과장에게 두 명의 부정을 폭로하였으나 김성수 과장은 그들의 부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역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동료들에게 술한 회유와 협박을 받으며 동료간의 정과 자신의 안위, 청렴과 원칙을 두고 갈등하던 재민은 결국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퇴사한다.</p> | |

시나리오 본문

scene 1.

그리 넓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장식품이나 화분 하나 없이 필요한 가구들만 놓여진 공간은 단조롭고 딱딱한 분위기를 풍긴다. 소파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티비를 보고 있고, 50대 중반의 여성은 테이블 옆 바닥에 앉아 사과를 꺾고 있다. 테이블의 반대편 바닥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이 앉아서 사과를 집어먹고 있다.

중년 남성: (리모컨을 들어 티비를 끈 뒤 낮은 목소리로) "재민아."

박재민: (심상치 않은 낯을 느낀 듯 긴장된 표정으로 남성과 여성을 번갈아 바라보며) "네, 아버지."

중년 남성: (딱딱한 표정으로 재민을 내려다보며) "너, 상철이 아저씨 알지?"

박재민: (잠시 눈알을 굴린 뒤) "중소기업 하신다는 그 친구분 말씀이세요?"

중년 남성: (슬쩍 눈길을 피하듯 천장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리 하나 마련했으니 너 거기 취직해라."

중년 여성: (짐작했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박재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사과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네? 갑자기요? 거기 작은 회사잖아요."

급여도 적을 텐데..."

중년 여성: (사과를 들어 던지는 시늉을 하며 큰 목소리로)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는 지금은 한 푼이라도 벌고 있냐? 네가 지금 크고 작은 거 따질 때야?"

박재민: (놀란 듯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그, 그야 그렇지만..."

중년 남성: (재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다. 가망도 없는 미술 붙잡고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낼 거냐?"

(고개를 돌리고 손을 휘저으며) "긴말할 것 없다! 다음 주부터 출근이니 그리 알아라!"

박재민: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굽적인다.)

scene 2.

넓직한 공장 부지 한 켠에 1층짜리 벽돌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유리문 옆에 걸린 녹색 현판에는 큼지막하게 '㈜ A기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공장 유니폼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성과 정장을 빼입은 재민은 그 건물의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중년 남성의 회색 유니폼은 기름때 하나 묻지 않은 채 잘 다려져 있었고, 그 밑으로 드러난 정장 바지와 검은 구두는 이 사람이 실무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옆의 재민은 경직된 표정과 자세로 걸어가고 있다.

대표이사: (건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가 2공장 사무실이야. 작지?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본사에서 해주니까 여기 사무실 직원은 세 명으로도 충분했거든. 이제 네 명이 됐지만."

박재민: (옆을 향해 비스듬히 고개를 숙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 아니 사장님."

대표이사: (재민의 등을 토닥이며) "사무직은 원래 대졸만 뽑는데 넌 똑똑한 거 내가 아니까 믿고 맡기는 거야. 알지?"

박재민: (옆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사람 좋은 듯 싱긋 웃으며) "그리고 누가 물으면 적당히 어디 4년제 대학 나왔다고 둘러대. 내 친구 아들이야,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알겠지?"

박재민: (또다시 고개를 꾸벅 숙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문 손잡이를 쥐고 슬쩍 밀며) "그래, 그래. 열심히 해."

시나리오 본문

scene 3.

대표이사가 유리문을 열자 좁은 사무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로 마주 보게끔 붙여놓은 5개의 사무용 책상 위로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즐비하다. 사무실 한쪽에는 냉장고와 정수기, 수납장이 놓여져 있는데, 수납장에는 칸마다 간식이 잔뜩 쌓여있다.

5개의 책상 중 세 곳에만 직원들이 앉아있다. 그나마 상석으로 보이는 곳에는 김성수 과장이, 그와 맞닿은 두 책상에는 이수현과 정지훈이 서로 마주 앉아있다. 그 옆의 두 책상에는 먼지 쌓인 컴퓨터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대표이사를 본 세 명의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일동: (입구를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며) "사장님 오셨습니까."

대표이사: (앉으라는 듯 손을 들어 까딱거린 뒤 손을 내리며) "김 과장이 생산계획에 출고 일까지 하느라 고생했지? 김 과장 편하게 해주려고 출고 담당을 따로 뽑았어.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박재민 씨야." (옆에 선 재민을 돌아보며) "재민 씨, 인사해."

박재민: (경직된 어깨를 한 채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품 출고 업무를 맡게 된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책상을 빙 돌아 재민에게 다가온 뒤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반갑습니다. 생산계획을 맡고 있는 김성수 과장입니다."

박재민: (연신 허리를 숙인 뒤 김성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김성수 과장님이시군요."

박재민이라고 합니다."

김성수: (재민의 손을 잡고 흔들며) "제 업무를 분담해주러 오시다니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밥이라도 사야겠습니다. 하하하."

박재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을 편 뒤 속마음 더빙) '과장이라고? 젊어 보이는데... 30대 중반쯤 됐으려나?'

김성수: (뒤로 돌아 여직원을 향해 손을 내밀며) "이쪽은 우리 사무실의 경리이자 터줏대감인 이수현 씨. 나이는 어리지만 베테랑이죠."

이수현: (싱긋 웃고 고개를 까딱이며) "이수현이에요. 나이는 스물아홉."

박재민: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며) "박재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서른하나입니다." (이수현을 향해 눈을 들고 내리깔기를 반복하더니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속마음 더빙) '예쁘다... 취직하기를 잘했어.'

김성수: (다른 남자 직원을 바라보며) "서른하나라고? 지훈 씨랑 동갑이네. 이쪽은 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정지훈 씨."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재민을 돌아보며) "아, 참고로 저는 서른넷입니다."

정지훈: (웃는 얼굴로 재민을 향해 걸어온 뒤 손을 내밀며) "정지훈입니다. 동갑이라니까 더 반갑네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박재민: (지훈의 손을 맞잡으며)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cene 4.

사무실 유리문이 열리며 재민이 들어온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은 뒤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수현은 재민을 보며 슬쩍 웃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 음료를 꺼내 들고 재민에게 다가온다.

이수현: (캔 음료를 재민에게 건네며) "덥죠? 출고 업무는 말이 사무직이지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박재민: (환한 표정으로 캔 음료를 받으며) "더울 때 먹는 음료가 더 맛있는 법이죠. 매번 고마워요."

시나리오 본문

정지훈: (능글맞은 표정으로 옆자리의 재민과 그 옆에 선 수현을 번갈아 보며) “어휴. 연애는 집에 가서 해. 솔로는 부러워서 일하겠냐?”

박재민: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치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수현 씨 곤란하게.”

이수현: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 곤란한데요?” (재민의 대각선 방향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후 재민을 보며 웃는다.) “너무 부정하니까 섭섭한데?”

박재민: (명한 표정으로 수현을 바라보며) “네?”

당황한 재민의 표정을 보며 각자 재밌다는 듯 작게 웃는다.

어색한 웃음을 짓는 재민과 성수, 지훈, 수현 순으로 포커싱하며 재민 내레이션 더빙

6월 12일. 월요일. 날씨 맑음.

계절이 한 번 바뀐 만큼 어느덧 회사 일에도 적응이 됐다. 비슷한 나이대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사님이 한 달에 한 번 꼴로 오셔서 보고를 받고 가시는 걸 제외하면, 이 사무실은 우리 넷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들 이 회사에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솔직히 월급이 꽤 적은 편인데 다들 불평 한마디 없다. 이런 말이 어울릴 진 모르겠지만, 좀 기특해 보인다.

(김성수 과장 포커싱) 김성수 과장. 이사님이 사무실을 비우게 되면서 임의로 과장이라는 직책에 올랐다고 한다. 본인도 과장님이라는 호칭보단 형이라고 불리길 원한다. 정말 푸근한 형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듯한데...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 아닌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걸까? 모르겠다.

(정지훈 포커싱) 지훈이. 사내답고 활발한 성격의 동갑 친구. 가끔 둘이서 술도 한잔씩 하는데 항상 먼저 계산한다. 월급이 적은 것은 매한가지일텐데, 나를 신입이라고 챙겨주는 게 고맙다.

그런데...(정지훈의 시계 클로즈업) 내가 상상만 해왔던 고급 시계를 차고 있다. 부럽다. 우리 월급으로 가능한가?

(이수현 포커싱) 수현 씨. 내가 이 회사를 좋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예쁜 분을 본 적이 있었나 싶다. 수현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수현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인다) 이상하게도 자꾸 눈이 마주치곤 한다. 그렇다면 수현 씨도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아닐까? 혹시 수현씨도 나한테... 아냐, 그럴리가 없지. 그런데 수현 씨는 옷을 정말 잘 입는 것 같다. (수현의 가방을 클로즈업) 가방도 매일 바뀌는 듯하다. 짝퉁일까?

scene 5.

사무실 한 쪽의 널찍한 탁자 위에는 나무젓가락, 비닐, 휴지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흔적들이 놓여있다. 재민은 쓰레기를 정리하며 탁자를 닦은 뒤, 간식이 놓인 수납장에서 과자를 들고 자리로 돌아온다.

정지훈: (옆자리에서 재민과 과자를 번갈아 바라보고는 웃으며) “또 먹냐? 오늘은 지가 사왔다고 아주 간식코너를 종일 들락거리네?”

박재민: (과자를 뜯어 먹으며) “맨날 얻어먹으려니 가시방석이었는데, 오늘 같은 날 많이 먹어야지.”

정지훈: (뭔가 쾅기는 듯한 표정으로) “야. 너는 이런 거 안 사도 돼. 네 월급으로 뭐...” (작게 헛기침을 한 후 말을 맺는다.)

시나리오 본문

박재민: (어리둥절하다는 듯 눈을 조금 크게 뜨며) “월급?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다들 박봉인 건 마찬가지 아니냐?”

김성수: (자신의 자리에서 목을 쪽 빼고 재민을 바라보며) “재민아, 지훈이 말은, 우리는 그래도 오래 일했으니까 모은 돈이라도 있지만 너는 여유가 없을 테니까 아껴야 한다. 뭐 그런 뜻이지.”

박재민: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눈알을 한번 굴린 뒤 마지못한 듯 웃음 지으며)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훈과 성수는 작게 헛기침을 한 후 언제 대화했냐는 듯 자신들의 책상 위로 고개를 돌려버린다. 재민은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간식 수납장으로 걸어간 뒤 종이컵과 커피믹스를 집어 든다. 그리고 책상을 빙 돌아 이수현의 등 뒤에 있는 정수기를 향해 걸어간다. 걸어가는 동안 재민의 눈길은 수현에게만 꽂혀있다. 수현은 재민의 눈길을 모른 채 무언가를 열심히 끄적이고 있다. 재민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는다. 커피를 훌쩍이며 재민은 수현의 어깨 너머로 수현의 책상을 슬쩍 바라본다.

수현은 식당의 이름이 적힌 빈 영수증에 글씨를 끄적이고 있다. ‘뚝배기 불고기’, ‘수량 3’, ‘6천 원’, ‘1만 8천 원’, ‘박재민, 박종범, 이준배’ 그 글씨를 본 재민의 눈이 커진다.

(속마음 더빙) ‘저건... 오늘 먹은 식당 이름인데, 이상하다. 내가 오늘 먹은 메뉴는 2,500원짜리 잔치국수인데 왜 뚝배기 불고기를 먹었다고 쓰시지? 그리고 저 현장 작업자들은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먹었는데...?’

수현은 그 밑으로 계속해서 메뉴 이름과 가격, 사람의 이름을 써 내려간다. 재민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황급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다.

scene 6.

재민의 집, 재민의 방 안에서 재민은 책상에 앉아 노트에 글을 끄적이고 있다. 글을 쓰려다 한숨을 내쉬 뒤 다시 펜을 든다.

(내레이션 더빙)

6월 14일 수요일. 날씨 매우 흐림.

이틀 동안 수현 씨를 지켜보았다. 수현 씨가 무언가를 끄적이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는 척하면서 어깨 너머로 살펴보았다. 수현 씨는 의외로 집중하는 타입인 건지, 아니면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지 딱히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다.

수현 씨는 점심 식사 때 직원들에게 저렴한 음식을 시키도록 유도하고는 영수증에는 비싼 음식을 기재한다. 심지어 건강상의 이유로 도시락을 싸 오는 사람의 이름도 적어서 금액을 불렀다. 왜 그러는 걸까? 식당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는 걸까? 그럴 리가 없다. 식당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게 틀림없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수현 씨의 행동은... 명백한 횡령이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에 빠져있다. 수현 씨에게 말해야 할까? 모처럼 수현 씨와 가까워지는 듯한데 사이가 멀어질까 두렵다. 그럼 지훈이에게만 슬쩍 털어놔 볼까?

scene 7.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재민은 불안한 얼굴로 옆자리의 지훈을 슬쩍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기를 반복한다. 지훈은 휴대폰을 만지느라 집중하고 있다.

시나리오 본문

(속마음 더빙) '말할까? 말해야겠지? 그래, 지훈이라면 비밀도 지켜주고 조언도 해줄 거야.'
재민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를 작게 끄덕인다.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재민은 유리문 밖으로 나가는 지훈을 바라보다 결심한 듯 따라나선다.

scene 8.

공터에 서 있는 지훈의 뒷모습이 보인다. 재민은 가까이 다가가려다 지훈이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걸 알고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다. 지훈의 통화 내용이 들리자 재민은 슬쩍 귀를 기울인다.

정지훈: "세 통만 줘요. 영수증은 네 통으로. 안전하게 한 통만 남깁시다. 에이,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이사님 다녀가고 나면 그때 다시 두 통 해줄 테니 좀 참아요."

박재민: (중얼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남긴...다고?"

재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는 도망치듯 사무실로 들어간다.

scene 9.

재민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으나 꼼짝도 하지 않는다.

(속마음 더빙) '분명 물건은 세 개, 영수증은 네 개로 끊어오라고 했어. 한 개만 남긴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 수현 씨뿐만 아니라 지훈이까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사장인 상철 아저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겠지? 성수 형은 알고 있을까?'

재민은 성수를 힐끔 바라본다. 서류와 모니터를 번갈아 바라보며 일에 열중하고 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수의 자리로 걸어간다. 재민이 옆에 서자 성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재민을 올려다 본다.

박재민: "형,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낀 건지 지훈과 수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재민과 성수를 번갈아 바라본다.

김성수: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당연히 시간 되지. 잠시 밖으로 나갈까?"

scene 10.

공터에 성수와 재민이 나란히 서 있다. 각자의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다.

김성수: (종이컵을 홀짝이며) "그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친한 형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털어놔 봐. 내가 조언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박재민: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머뭇거린 후) "형은... 아는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성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가 다시 웃으며) "글쎄? 누구인지, 어떤 일인지에 따라 다르겠지?"

(재민의 어깨를 툭 치며)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어떻게 상담하겠다는 거야?" 무슨 일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도와주지."

시나리오 본문

박재민: (다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 수현 씨와 지훈이가 거래처와 결탁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횡령이라고 해야 하나..."

김성수: (눈을 들어 슬쩍 하늘을 바라보며) "뭔가 봤나 보구나."

박재민: "네. 증거는 따로 없지만 분명히 보고 들었거든요. 영수증을 위조해서 업체에 이득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게 분명해요."

김성수: (몇 초간 생각에 잠긴 후 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증거가 없으니 일단 신중해지자. 내가 알아보고 어떻게든 조치할 테니까 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기다려 봐. 나한테 맡겨. 알겠지?"

박재민: (성수를 바라보고 안도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네! 형한테 맡길게요. 역시 형한테 말씀드리길 잘했어요. 감사해요, 형!"

scene 11.

사무실에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만 간간이 들린다. 재민은 지훈을 향해 슬며시 고개를 돌린다.

박재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지훈아, 월급도 탔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는데 오늘은 내가 쓸게."

정지훈: (약간 움찔거리는 듯 어깨를 움츠리며) "아, 오늘 약속 있어"

박재민: "아 그렇구나. 다음에 시간 나면 말해 줘. 내가 한잔 살게."

정지훈: (기 죽은 목소리로) "어, 그래..."

지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유리문을 향해 걸어간다. 걸어가는 도중에 조심스럽게 재민을 돌아본다. 재민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리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재민은 고개를 슬쩍 가웃거리고는 수현을 바라본다.

박재민: "수현 씨."

이수현: (화들짝 놀라며) "네? 네?"

박재민: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꿈뻑거린 뒤)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제가 밥 한끼 살게요."

이수현: "아 저도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수현은 자세를 슬쩍 낮춰 모니터 너머로 얼굴을 숨긴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재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심하다, 뭔가 떠오른 표정으로 성수를 바라본다.

(속마음 더빙) '갑자기 다들 날 피하는 이유는 암만 생각해봐도 하나뿐이야. 성수 형이 두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것도 내가 봤다더라 하고 말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대체 왜? 자신이 해결한다고 해놓고는'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사무실 내로 들어오진 않은 채 문을 잡고 서서 재민에게 손짓을 한다. 재민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인다.

scene 12.

공터에 지훈과 재민이 서 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지훈이 재민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정지훈: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

시나리오 본문

박재민: (잠시 말없이 지훈의 표정을 살피다) “성수 형한테 들었어?”

정지훈: (고개를 숙인 채 발로 흙바닥을 비비며) “넌 미술만 하다 첫 직장생활을 하는 거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고 회사야. 회사가 월급을 지나치게 적게 준다? 그럼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박재민: “그건 횡령이잖아.”

정지훈: (재민을 향해 고개를 핵 돌리며) “야! 뭘 횡령...”

지훈은 커진 목소리를 얼른 낮추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사나운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본다.

정지훈: “내가 회삿돈을 훔쳤나? 그냥 거래처한테 수고비 좀 받는 거야.”

박재민: “영수증을 위조하면 회사에서 거래처에게 실제 거래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거래처에서 너한테 그 이득을 나눠줬겠지. 그럼 결국 회삿돈이 너한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건 곧 횡령이야.”

정지훈: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뱉으며 하늘을 쳐다보다 다시 재민을 바라보며) “그래서, 본사에 보고할 거냐?”

재민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정지훈: “여긴 원체 엉망으로 돌아가는 회사라, 자재 투입량이 체크가 안 돼. 로스쿨이 원래 엄청난 회사야. 영수증에 네 개라 적혀 있으면 네 개인 거야. 생산 로스가 많이 나서 자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상할 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증거도 없고, 네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어. 막말로, 오래 일한 우리 말을 믿겠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네 말을 믿겠냐?”

박재민: (한숨을 내쉬며) “하...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자재가 소모된 근거도 없고 내 말도 안 믿어주겠지. 너와 수현 씨는 잠시 의심을 사더라도 한동안 몸 좀 사리면 들키지 않고 넘어갈 거고... 나만 여기저기에 다 걸고러워지겠지.”

정지훈: (팔로 재민의 어깨를 두르고 한차례 흔들며) “그래, 인마! 서로 좋을 게 없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 사이인데 내가 너 섭섭하게 하겠냐? 내가 잘되면 널 외면하겠냐고!”

박재민: (지훈의 팔을 풀어내며)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내가 보고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가 한 짓을 납득할 순 없어.”

정지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하... 이 순진하고 짝 막힌 녀석...”

박재민: “성수 형은 자기가 해결한다고 해놓고는 너한테 그대로 일러바치다니. 무슨 생각이신 거지? 성수 형이 대체 너한테 뭐라고 말했었어?”

정지훈: (코웃음을 치며) “성수 형? 하, 너 성수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넌 성수 형더러 우리를 타일러 달라는 뜻으로 얘기했는지 몰라도, 성수 형이 부정부패의 원조야, 인마.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박재민: “뭐? 원조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정지훈: “현장에서 왜 생산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자꾸 불만을 터뜨리는 줄 알아? 성수 형이 제품 타입과 색상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뇌물을 준 순서대로 생산계획을 앞당겨서 그래. 성수 형이 지금까지 먹은 돈을 알면 넌 까무러칠 거다.”

재민은 황당하다는 듯 입을 짝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 한다.

시나리오 본문

정지훈: "성수 형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 네가 다 알게 됐는데 네 입을 어떻게 막으면 좋겠냐고. 성수 형이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한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였어."

성수가 항상 웃는 얼굴로 재민을 다독여주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재민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이마를 짚고 미간을 찌푸린다. 재민은 지훈을 두고 혼자 사무실을 향해 걸어간다.

박재민: (어깨를 늘어뜨린 채 작게 중얼거리며) "성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처럼 대해줬는데... 그런 성수 형이 뇌물을 받고 있었다니..."

정지훈: (걸음을 옮기는 재민의 등을 바라보며) "재민아, 생각 잘해라. 결국 네가 계속 마주쳐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야."

scene 13.

재민은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 책상에 앉는다. 수현은 재민이 들어오자마자 모니터 너머로 숨어있고, 성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거리고 있다.

박재민: (꺼진 모니터 화면만 응시한 채) "성수 형도 뇌물을 받고 있었다면서요?"

김성수: (고개를 슬쩍 돌린 채 작은 목소리로) "지훈이 이 자식이 괜한 말을..."

박재민: "수현 씨와 지훈이는 영수증 위조로 거래처에 부당 이득을 준 후 일정 금액을 받는 것 같고, 성수 형은 생산계획을 앞당겨 주는 조건으로 발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제 말 맞죠?"

김성수: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재민의 자리로 걸어오며) "저기, 재민아. 내가 딸아이 유학도 보내야 하고, 전부인한테 생활비도 줘야 하고 말이야.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변명인 건 나도 알지만, 나 그래도 내가 받는 급여보다 훨씬 많은 공헌을 했어. 급여를 더 많이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니 내가 알아서 수당을 챙긴 셈 치고 이해 좀 해줘. 응?"

박재민: (살짝 서글픈 표정을 지으며) "형. 업무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면 임금협상을 하든가, 이직을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건 아니죠..."

김성수: "그래, 사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너도 혼자 몸이니 딱히 돈 들어갈 곳이 없겠지. 하지만 머잖아 부모님도 보살펴야 하고 네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생겨.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박재민: "형, 아무리 그래도..."

김성수: (재민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그러지 말고 너도 미리 준비해 뒤. 출고 쪽은 챙길 건수가 없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 운송업체끼리 경쟁을 붙이는 거야. 웃돈을 더 많이 얹어주는 쪽에 화물을 주는 거지."

재민은 신이 난 듯 말하는 성수의 손을 슬며시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박재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주섬주섬 가방을 챙긴다)

김성수: (복잡한 표정으로 재민의 등을 바라보며) "어... 그래. 고생했어..."

scene 14.

재민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 시간 전광판을 바라볼 때, 수현이 헐레벌떡 뛰어온다.

박재민: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 수현을 바라보며) "수현 씨..."

이수현: (가쁜 숨을 고르며) "잠깐 얘기 좀 해요."

시나리오 본문

버스 정류장의 의자에 앉은 두 남녀는 몇 초간 말이 없다. 재민은 손에 든 캔 음료를 흘쩍였다.

이수현: (한숨을 내쉬며) “하... 이제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많이 실망했죠?”

박재민: (수현의 말이 의외라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눈을 굴리며) “아뇨... 뭐, 딱히?”

(속마음 더빙) ‘사무실에서 그 난리를 피워놓고 이제 와서 ‘딱히’라니, 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수현: (쓴웃음을 지으며) “정말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재민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박재민: (음료를 마시다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한 뒤 당황한 표정으로 수현을 바라보며) “네에?”

이수현: “뭐야, 몰랐다고요? 대체 눈치가 얼마나 없는 거야?”

박재민: “어... 어? 정말로요?”

이수현: “하지만... 재민 씨는 제가 밉겠죠?”

박재민: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아닌데요?!”

이수현: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요?”

박재민: “그, 그건 그렇지만...”

이수현: (고개를 들어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전 이제 회사에서 잘리겠죠? 이제 재민 씨를 볼 수 없는 건가...”

박재민: “잘리...다뇨?”

이수현: “재민 씨가 저를 고발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박재민: “그, 글썄요...”

이수현: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니라곤 안 하네.”

박재민: “어, 어디 가요.”

재민은 다급하게 손을 뻗어 수현의 손목을 잡고는 스스로 화들짝 놀라 손을 떼다.

이수현: (재민의 앞에 쪼그려 앉으며) “본사에 보고 안 하면 안 될까요?”

박재민: “수현 씨...”

이수현: (양손으로 재민의 손을 부여잡으며) “저는 재민 씨 오래 보고 싶어요. 이제 영수증 위조 같은 짓은 안 할 테니까, 두 사람도 설득해 볼 테니까, 재민 씨는 우리에게 시간을 좀 줘요. 네?”

박재민: (자신의 손을 잡고있는 수현의 손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네, 알겠어요... 보고 안 할게요.”

scene 15.

내레이션 더빙

6월 26일 월요일. 날씨 흐림.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한동안 서먹하던 동료들과는 다시 조금씩 예전의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특히 수현 씨와는 가끔 주말에 만나기도 하는 사이가 됐다. 좀 신중한 성격인 건지, 아직 이렇다 할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수현 씨는 가끔 내게 식당 영수증을 보여준다. 메뉴와 명단이 제대로

적힌 영수증이다. 성수 형은 가끔 내 눈치를 살피며 ‘조금씩 줄이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훈이는 딱히 내 눈치를 살필 필요조차 못 느끼는 것 같다. 내가 보고해 봤자 증거도 없으니

그다지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훈이의 영수증 위조는... 여전히다.

시나리오 본문

그러나 나는 수현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해 버렸다. 점차 사람들을 변화시켜 볼 테니, 본사에 보고하지 말아 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뇌물을 받거나 영수증을 위조하는 사람들을 두고, 내가 묵인해 주는 게 과연 옳은 걸까?

scene 16.

재민은 동네 슈퍼에 들어섰다. 소주와 과자들을 바구니에 주워 담고 계산대에 선다.

슈퍼 주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2만 5천 원."

박재민: (만 원 짜리 세 장을 내밀며) "여기요."

슈퍼 주인은 노란 지폐를 건네고, 재민은 지폐를 받고는 검은 봉지를 들고 슈퍼를 나선다.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느라 떨어진 노란 지폐를 주워 든 재민의 눈동자가 커진다.

박재민: "5천 원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셨잖아? 이게 웬 횡재야?"

재민은 활짝 웃으며 경쾌한 걸음걸이로 걸어가다, 점점 표정이 굳으며 발걸음이 느려진다.

빈 영수증에 임의로 메뉴를 기재하던 수현, 업체와 부정한 통화를 하던 지훈, 컴퓨터로 생산계획표를 수정하는 성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그곳에,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박재민: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횡재라고? 그들의 행동은 질책했으면서, 슈퍼 주인 아주머니의 돈을 빼앗고 있는 거야? 이러면 내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지?"

재민은 몸을 돌려 다시 슈퍼로 향한다.

scene 17.

사무실로 들어온 재민은 유니폼이 아닌 사복 차림을 하고 있다. 동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재민을 바라보고 있다.

이수현: "재민 씨, 잠깐 안 보이더니 왜 갑자기 옷을 갈아입었어요? 조퇴라도 해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걱정스레 묻는 수현의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짐을 챙기던 재민은 동료들을 향해 허리를 숙인다.

박재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친형처럼,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신 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민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퇴사라도 하는 거야?"

박재민: "네, 이제 공무원 준비 좀 해보려고요."

김성수: (서운한 표정으로) "그래?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말 안 한 건 좀 서운하네. 혹시... 우리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

성수는 대답을 기다리는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본다.

시나리오 본문

박재민: "솔직히... 아니라곤 못 하겠네요."

김성수: (착잡한 듯 눈을 내리깔며) "그랬구나. 너한테 정말 미안할 따름이다. 형으로서 못한 모습만 보인 것 같네."

박재민: "저도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겨버렸거든요. 대표이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정지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뒤 재민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뭐? 너 이 자식 결국...! 하지만 그래봤자 증거가 없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서로 귀찮아지기만 할 뿐이라고!"

재민은 말없이 휴대폰을 만진 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휴대폰에서는 녹음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여긴 원체 엉망으로 돌아가는 회사라, 자재 투입량이 체크가 안 돼. 로스율이 원래 엄청난 회사야. 영수증에 네 개라 적혀 있으면 네 개인 거야. 생산 로스가 많이 나서 자재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상할 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증거도 없고, 네 말을 믿어줄 사람도 없어. 막말로, 오래 일한 우리 말을 믿겠냐, 들어온 지 몇 달 안 된 네 말을 믿겠냐?]

재민은 휴대폰을 집어 들고는 중지 버튼을 누른다. 성수와 수현의 얼굴에는 좌절이 깃들고,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찬다.

정지훈: (재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며) "너, 이 자식!"

지훈은 재민을 칠 듯이 다가오다 무언가를 보고는 자리에 우뚝 멈춰 선다. 유리문을 열고 네 명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김성수: (눈을 크게 뜨며) "사장님... 전무님..."

대표이사: (한숨을 내쉬 뒤 성수를 노려보며) "김 과장을 믿고 2공장을 맡겼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김 과장뿐만 아니라 지훈 군, 수현 양까지."

수현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고, 지훈은 굳은 표정을 하고 뒤로 두 세 걸음 물러난다.

대표이사는 옆에 선 두 명의 직원에게 손짓을 한다.

대표이사: "1년 치, 아니 2년 치 생산계획표를 다 조사해. 그리고, 자재 업체 리스트 짝 뽑아서 고소 준비해."

대표이사는 김성수, 정지훈, 이수현을 한 번씩 훑어본다.

대표이사: "자네들은 해고야. 집에 가서 법적 처분이나 기다려."

성수와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고, 수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시나리오 본문

scene 18.

넓직한 사무실에 L자 형태의 소파가 놓여있다. 소파 뒤의 책상에는 '대표이사 윤상철'이라고 적힌 검은 색 명패가 놓여져 있다.

소파에는 대표이사와 재민이 앉아 차를 훌쩍이고 있다.

대표이사: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고 몸쓸 것만 보여줬구나. 미안하다."

박재민: 아닙니다, 사장님. 저도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대표이사: (쓴 웃음을 지으며) "퇴사했으면 이제 사장님이 아니라 아저씨지."

박재민: "하하하. 그렇네요, 아저씨."

대표이사: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뒤 탁자에 내려놓으며) 계속 다닐 생각은 없냐? 너 같은 인재가 있으면 이제 정말로 발 뺀고 2공장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 자리에 올려주고 급여도 최대한 맞춰 주마."

재민은 찻잔을 손에 쥔 채 몇 초간 말이 없다.

박재민: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도 떳떳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인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많이 흔들렸어요. 슈퍼에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5천 원이 아니라 5만 원권으로 잘못 주신 걸 알고 기뻐한 소인배가 바로 접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비리를 모두 밝히기로 결심한 것도, 못한 저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어요."

대표이사: (재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곧고 멋진 사람이라는 증거다. 게다가 이번 일로 난 네가 더욱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고 믿어."

박재민: "감사합니다. 저도 뭐가 옳고 그른 건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 좀 했습니다. '청렴'이라는 거더군요. 저 스스로 더욱 떳떳하고 청렴한 사람이 되기 위해, 공무원을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대표이사: "그래. 나도 네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다.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

박재민: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사가 더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은 공장을 나와 거리를 거닌다.

내레이션 더빙

내 손이, 내 발이 내 뜻을 거부하고 각자 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인간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구성원이 제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각자의 이득을 위해 멋대로 움직인다면 그 어떤 사회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다. 구성원이 사욕을 채우지 않고 제 역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청렴이며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든다.